

109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공동체 :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12)

주제: 일본언어 연구 -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제12회 유라시아재단 국제 강좌에서는 본교 일본연구센터주임 진순익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 언어의 연구에 대해 들었다. 진 교수의 연구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부는 일본어 중의 상당 부분이 중국어 발음과 유사하다는 것이며, 후반부는 그리스어와의 비슷한 부분을 소개하였다.

일본어의 한자음 중에는 서로 다른 시기에 중국어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한자음의 발음이 같지 않다. 또한 일본어에는 음독, 훈독이 있는데 음독은 다시 오음(吳音)、한음(漢音)、당음(唐音)등이 있다. 한음(漢音)은 당나라 시대의 장안부근의 발음이고 견수사와 견당사(遣隋使、遣唐使)를 통해 대량으로 들어왔다. 오음(吳音)은 중국의 남방의 발음으로 5, 6세기때 조선을 통해서 들어왔다. 당음(唐音)은 송나라 이후에 일본에 들어왔다. 송음(宋音)은 원나라와 명나라를 통해 들어왔으며 대부분이 불교전문용어이다. 예를 들면, ‘行政[ぎょうせい]’ (오음(吳音))와 ‘銀行[ぎんこう](漢音) 등이다.

일본어의 한자음은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자 발음의 규칙을 많이 수용하였다. 일본어 한자음은 대체적으로 민남어(台語)에서부터 표준 중국어 한자음까지의 발음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어 발음은 표준 중국어 발음이나 민남어 발음과도 같다.

촉음(促音)에는 중국어의 입성자 (入聲字 (P T K) )에서 온 것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1) T입성자(T入聲字 (チ・ツ) ): T음이 HTK과 결합하면 촉음이 발생한다 (H 음이 P음이 됨) .

(예) 八[はち]+本[ほん] ➡[はっぽん]

(2) K입성자(K入聲字 (キ・ク) ): K음이 K음과 결합하면 촉음이 발생한다.

(예) 学[がく)+校[こう] ➡[がっこう]

(3) P입성자(P入聲字): U 음이 추가된다. 단지 몇 개의 글자에서 볼 수

있는데 상용한자중 十、入、雜、甲、納 등이다.

(예) 十本[じゅっぽん]、入声[にっしょう]

발음 규칙의 예로는 중국어 발음 안(ㄢ[an]), 언(ㄣ[en])의 음으로 일본어의 발음으로는 음([ん])의 음이다. 예를 들면, 安[あん]、陳[ちん]이다. 그리고, 중국어 발음 양(ㄤ[ang]), 영([ㄥeng])의 음으로, 일본어 발음으로는 이([い]) 또는 으 [う]의 음이다. 예를 들면, 長[ちょう]、正[せい、しょう] 등이다.

위에 제시한 단어 외에 일본어 단음절 두 박자의 한자음은 【 i 】 음이 아니고 う 【 U 】인 것이다.

후반부에는 최근에 일본어와 그리스어가 서로 비슷하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고 하였다. 일본의 여러 풍속 문화가 구소련과 구미국의 문화 그리고 유대교 등의 문화와 비슷함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유동조론(日猶同祖論)의 가설도 있다고 하였다. 일유동조론은 스코틀랜드 선교사 노먼 매클러드(Norman McLeod)가 일본인이 유대인의 잃어버린 10부족의 후예라는 설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일본인의 유전자는 유대인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일유동조론 논리를 강하게 부정하는 논리이다. 역사학자들은 일유동조론(日猶同祖論)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거나 여러 각도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언어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9,000km나 떨어진 곳의 언어가 어떻게 그렇게 여러 공통점이 있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했다.

일본천황기(국화문장(菊の御紋))와 고대 유라시아 문명(예루살렘 북쪽의 헤롯 게이트)의 관련성인데, 일본의 개국천황은 실제로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의 텐구(天狗)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 같은 것 등이라고 했다. 카와모리타 에이지는 『日本言語考古学』 및 『日本へブル詩歌の研究』 중에서 일본어와 그리스어가 같다는 것을 여러 개 예를 들었다.

진 교수는 언어학의 관점으로 보면 일본어 중의 한자어는 하나도 의심할 것 없이 중국에서 왔음을 알 수 있으며, 그래서 일본어의 한자 발음은 중국어나 민남어를 추측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 중의 일본 고유의 말은 불가사의하게도 그 머나먼 그리스어와 같다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어와 고대 그리스어가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더 많은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이트 연결: <https://Eurasia.pccu.edu.tw/faculty.php>)

원고: 陳毓敏 · 일본어학과 부교수

번역: 장수애(張秀藹)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부교수